

친환경 농산물 수요 느는데 재배는 줄어

지난해 출하량 10%이상 감소 ... 곡류 34% 급감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차지 ... 소득 향상 대책 시급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면적은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이 국내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3~2015년 줄어든 이후 최근까지 정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출하는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율을 보였으며 곡류(33.8%↓)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채소류(28.0%↓)와 특용작물(26.7%↓)이 그 뒤를 이었다.

곡류와 채소류의 경우 유기농산물의 지난해 출하량은 전년대비 각각 1.2%, 2.2% 증가한 반면,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은 전년대비 35.8%, 7.1%씩 감소해 친환경농산물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남지역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0.7%인 4만3000ha가 전남지역으로, 전북과 경기의 인증면적은 각각 6280ha, 6040ha로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 인증면적은 전년대비 6.7% 증가했고 경기지역은 10.2%가 증가한 것과 달리 다른 지역의 인증면적은 감소했다는

게 농경원 측의 설명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전년대비 21.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가장 큰 전남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인증면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농도' 전남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유기식품의 국내유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유기식품의 수입 건수는 5600여건으로 전체 식품 수입건수의 1.3%를 차지했고, 수입물량과 금액도 4600t, 12억94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5%, 24.5%로 크게 증가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도 오는 2025년 2조1360억원까지 성장하는 등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남지역 농가의 수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기농산물은 연평균 3.6%씩 증가해 2025년 57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농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이보다 더 빠른 연간 6.7% 증가해 2025년 5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가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직불제도를 통해 일반농업보다 친환경농업의 생산비용 격차를 보전하는 노력과 저렴한 친환경농자재 개발·보급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경원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실인증 사례를 극복하고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급식과 수출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서광주 농협, 상호금융 2조원 성과

우수 농축협 지역1위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은 16일 상호금융 사업량 2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설립된 서광주농협은 2006년 상호금융 1조원을 달성한 뒤 2008년 대출금 5000억원 달성, 2016년 예수금 1조원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 7월 말 사업량(예수금+대출금) 2조원의 성과를 이뤘다.

여기에 서광주농협은 본점 외 16개 지

점과 하나마트 동림점, 광주시청 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올해 상반기 농축협 하나마트 특별 업적평가 3그룹 1위를 기록했고, 서민금융지원 우수 농축협 광주지역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병우 조합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를 선도하고 각종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과 화합·소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최근 대만 제이슨 마켓 플레이스 양화비양광장점에 문을 연 K-Fresh zone의 전경.

(aT 제공)

'K-Fresh Zone' 대만 등서 오픈 ... 국산 농산물 수출 탄력

감귤·단호박 등 20여종 판매 농식품부·aT 소득창출 협력

신선농산물 포털 'K-Fresh Zone'이 세계 곳곳에 문을 열어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16일 대만 내 고급 슈퍼마켓인 제이슨마켓플레이스(Jasons Market Place)에서 국산 신선농산물 20여종을 전문 판매하는 'K-Fresh Zone'을 열고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선 농산물은 짧은 유통기간과 통관 어려움으로 대만에서도 신선농산물 수입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특성 탓에 한국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려는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T는 올해부터 신선농산물을 전문으로 현지 수입바이어와 적극 협력해 대만 내 최초 'K-Fresh Zone'을 운영하게 됐다. 기존 수출되던 배, 멜론, 배추 등 인지도가 형성된 품목 외에도 감귤, 단호박, 당조고추 등 신규 품목을 입점·판매하는 등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aT는 태국 방콕에

4개소, 싱가포르 10개소 등 'K-Fresh Zone'을 운영하는 등 소비촉진에 나서고 있으며, 현지에 알려지지 않은 국내 작물을 알려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 이사는 "농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인프라 마련을 위해 K-Fresh Zone을 기획하게 됐다"며 "한국형 블루베리, 감귤, 양배추 등 우수 작물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장구로 삼아 소비자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업직불금 1조513억 추석전 조기 지급키로

1인당 평균 93만여원

농업직불금이 추석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금 1조513억원을 추석 전인 오는 17~21일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모두 113만명이다.

통상 11월에 지급하던 직불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추석 명절과 수확기 영농 활동에 도움을 주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올해 직불금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43억원 늘어났으며, 지급대상 면적은 지난해보다 4000ha 늘어난 1288ha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3만2000원으로, 종류별로는 쌀 직불금이 103만9000원, 밭 직불금이 32만1000원, 조건 불리 직불금이 31만1000원 등이다.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46억원, 1.8% 감소해 78만6000명이 7169억원을 받는다.

밭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73억원, 10% 증가해 49만4000명이 1906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조건 불리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6억원, 3.8% 증가해 13만1000명에게 438억원이 돌아간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햇쌀 '조명1호' 홈쇼핑 매출 1억 돌파

목표대비 180% 달성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영광군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전남햇쌀 '조명1호'가 목표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판매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전남농협은 전남도와 함께 공영홈쇼핑을 통해 전남지역 브랜드쌀을 선보이며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남지역 쌀을 알리는 등 소비촉진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선보인 '조명1호'는 판매가 가장 어려운 시간으로 꼽히는 오후 2시10분부터 3시까지 방영됐지만, 방송국 목표대비 180% 수준인 1837세트(10kg×22)를 판매를 기록하며 매출액 1억500만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전남브랜드쌀 릴레이 방송으로 1회 풍광수도 1134세트 5900만원, 2회 녹차미인쌀 1273세트 7400만원에 이어 3회차 방송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되면서 전남쌀의 전국판매도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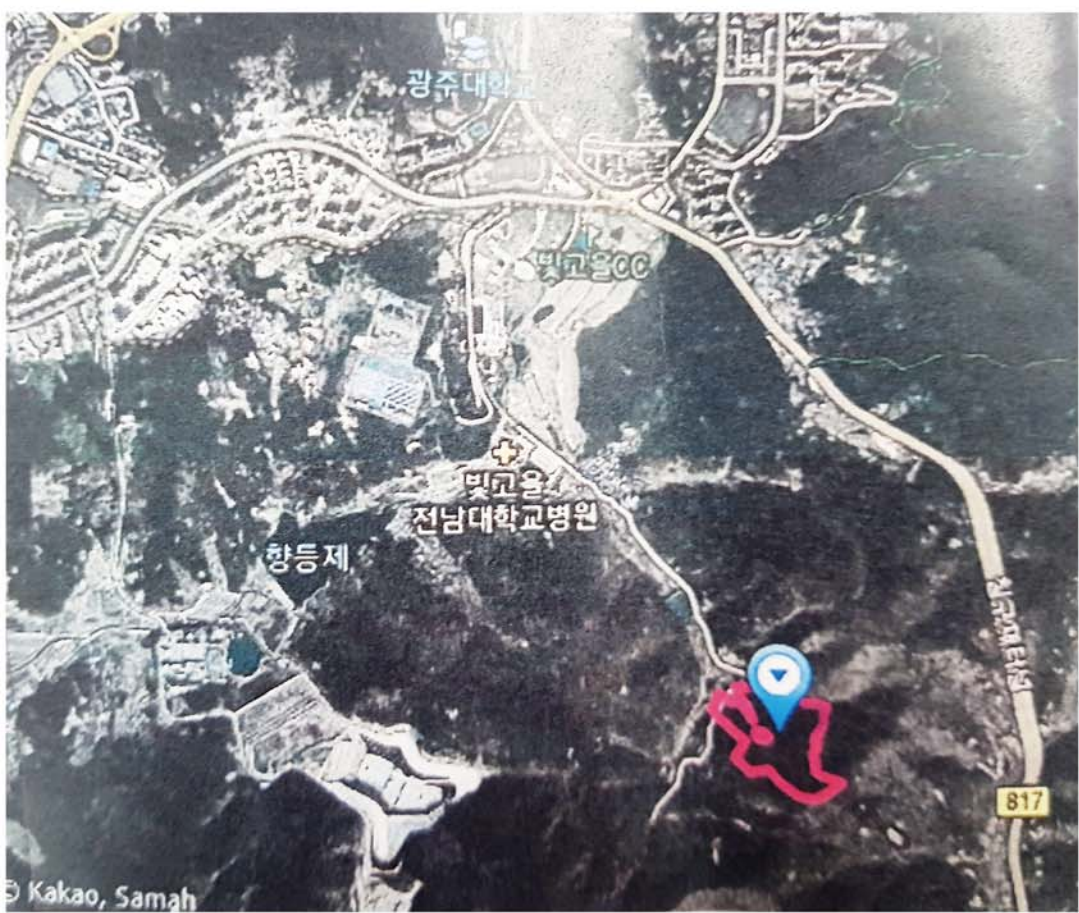
을 받게 됐다. 실제 구매층은 경기(24%)와 서울(22%)이 많았고 이어 부산(12%)과 인천·경남(8%)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지역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조명1호'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석전 햅쌀을 시장을 겨냥해 우리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적합하도록 고시히까리와 온누리 품종을 교배한 것으로, 생산력 지역적응성 검증과 품종등록을 마친 품종이다. 밥맛이 좋고 비현알마름병 및 줄무늬알마름병에 저항성이 높은 조생종 벼다.

박태선 본부장은 "이번 방송은 전남도가 지역 재배에 적합토록 개발한 대표품종 조명1호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전남햇쌀을 알리는 데 초석을 마련했다"며 "우리지역 재배환경에 최적화된 품종 개발된 우수한 품종들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